

아시아 역사에 담긴 고통과 상처 조명

ACC, 24일 아시아문화포럼 개최 김시중 시인 등 5개국 12명 참여 '2022 아문학페스티벌' 마중물로

오월정신과 민주화투쟁의 경험을 간직한 광주는 아시아 국가들과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 광주의 문화는 지역을 넘어 아시아, 세계와 평화의 연대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접점을 이룬다.

아시아의 삶과 다양한 상처를 모티브로 문학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열리는 2021 아시아문화포럼이 그것.

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용신)과 아시아문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경자)는 오는 24일 아시아문화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문화포럼은 내년 개최되는 2022 아시아문화페스티벌 마중물을 위해 기획됐으며 온라인 서비스(ACC 유튜브채널)와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 운영한다.

'이주', '경계', '증인', '차별' 같은 키워드는 그동안 아시아의 상처와 아픔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어휘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필리핀, 인도, 미얀마 등 모두 5개국 12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주제에 담긴 '읽다'라는 표현처럼, 각국의 작가들은 '아시아'의 역사에 담긴 고통과 다양한 상처 등을 정직한 언어로 조명하고 가치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호균 아시아문화페스티벌 집행위원장 개회사로 시작되며, 매일 조선인 시인 김시중의 기조발제가 이어진다. '광주시편'이라는 시집을 발간한 김시중 시인은 1991년 작품집 '원야의 시'로 오구마 히데오 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29년 부산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성장한 시인은 1949년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1953년 시 동인지 '진달래'를 창간하는 등 일본에서 활발한 문학활동을 펼쳤다.



김시중 시인



채희운 소설가



김형중 평론가

이후 2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먼저 1세션은 하상일 문학평론가(동대 교수) 사회로 '이주·이산·경계'를 주제로 펼쳐진다. 2014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된 인도 소설가 아룬다티 로이가 '우리는 심판해야 한다'를, 작가회의 산하 '민족문학연구소' 연구원인 고명철 문학평론가(광운대 교수)는 '아시아 문학의 정치적 상상력'을 발표한다.

이후 손병현 소설가(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가 '인도 팬데믹 코로나 상황의 소설화-이주·이산·경계'를 근간으로 주제로 이야기하며, 채희운 소설가(작가회의 부이사장)는 '고명철 선생의 '아시아문학의 정치적 상상력-이주·이산·경계'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2세션은 김형중 문학평론가(조선대 교수) 사회로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집단학살, 쿠데타와 같은 그동안 아시아가 겪어야 했던 어두운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필리핀 소설가 지나 아포스톨이 '미군의 필리핀 원주민 집단학살에 대한 문학적 증언'을 주제로 발표한다. 장편 '무기상의 딸'로 2013년 미국 펜 오포소설상을 수상한 지나 작가는 필리핀 문단에

데뷔한 후 미국 존스홉킨스대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했다. 이어 '아시아라이트저널' 등에서 활동한 미얀마 시인 티나코는 '미얀마 쿠데타 난국과 작가들의 희생 보고서'를 주제로 코로나로 고통받거나 쿠데타로 사망한 미얀마 시인들의 절절한 시를 소개한다.

'나의 아름다운 정원'의 작가 심운경이 '우리가 벽을 쌓을 때'를 주제로 질문을 하며 '문학' 편집위원인 윤수종 전남대 교수가 '마스크 쓴 얼굴과 색다른 운동'을 모티브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경자 조직위원장은 "이번 문화포럼을 계기로 모든 존재의 존엄에 대한 반생명적 파편화로부터 평화와 연대의 공존을 지켜내기 위한 아시아문화페스티벌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21 아시아문화포럼 사전행사 '미리 만나는 아시아 문학'이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세 차례 열렸다. 광주문인협회와 광주전남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이 참여해 '왜 지금 아시아 문학인가', '김시중의 문학세계', '미얀마와 문학'에 대해 폭넓은 문학 담론의 장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문의 062-601-456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음악으로 5월 정신 다음 세대에 전승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 23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음악으로 5·18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고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청소년들의 연주가 시작된다.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가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통해 광주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5월 창단식을 갖고 출범했다. 광주시교육청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사)전남문화예술협회 등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5·18 유가족 자손들과 지역 초·중학생들 50여명으로 구성됐다.

5·18시민군이었던 채영선 전 광주시 문화도시

정책관이 단장을 맡았으며 예술감독 임복희, 바이올린 최희정, 비올라 양신애, 더블베이스 류수경 등 최고의 실력을 갖춘 강사진들이 학생 지도에 나섰다. 단원들은 약 7개월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중앙초등학교에서 연습을 진행하며 실력을 쌓았다.

이날 공연에선 오스트리아의 장군인 라데츠키의 이름을 딴 슈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을 시작으로 한국적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이원수 '고향의 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민중가요 김종률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연주한다. 또 헨리 클레이 위크 '할아버지 낚은시계', 프리드리히 실러 '환희의 송가', 이문세 '붉은 노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3악장' 등도 들려준다.

무대에는 39명의 단원들이 오르며 사회는 윤지현이, 지휘는 최영미가 맡았다. 문의 010-3606-366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 5·18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가 오는 23일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열린다.

창작의 열정, 첫 창작집에 담긴 문체 미학

광주문인협회장 탁인석 수필가 '문학이라는 마법으로' 펴내

"문학의 분류가 시(詩)인 것은 물론이지만 나 자신에게는 산문이 훨씬 가깝게 다가왔다. 햇빛을 향해 날개가 뻗어가듯 재능의 방향으로 관심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였다."

광주문인협회 회장인 탁인석 수필가가 작품집 '문학이라는 마법으로' (시와 사평)를 펴냈다.

그동안 대학교수, 광주시 교육위원, '광주문화 21' 발행인, 문화수도포럼 상임대표, 아시아문화페스티벌 조직위원 등을 역임했던 탁 수필가는 오랫동안 문학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문화 마이너스'라는 애칭을 얻을 만큼 문화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내면에는 늘 창작에 대한 열망이 잠재돼 있었던 것.

오덕렬 수필가가 이번 작품집에 대해 "다양한 체험, 소재의 핵심을 꿰뚫는 안목, 예리한 판단력"이라고 말한 대목은 탁 수필가의 다양한 경험과 어우러진 글솜씨에 대한 상찬일 터다.

이번 수필집은 그동안 발표한 여러 칼럼과 글의 결실이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작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비롯해 12편, 2부는 '백석과 자야' 외 13편, 마지막 3부는 '행릿성

에서 비를 맞다' 외 12편 등 모두 40여 편의 에세이 가 실려 있다.

저자는 대학교수인 영문학자 시절에는 주로 문학을 읽고 강의했다. 주변에서는 시인이 되기를 독려했지만 내로라하는 영미시인들 시 앞에서 "나의 운문은 새색시의 수줍은 불처럼 달아올랐다"고 고백했다. 수록된 작품들에서 시적인 분위기와 정갈한 문체 미학이 엿보이는 것은 저자의 일화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저자는 치열하지 못했던 글쓰기에 대해 반성과 함께 자신을 문학의 길로 이끌었던 대학시절 은사인 최용재 교수를 회고한다. 과제로 제출한 원고에 'very excellent'라고 표기해줬던 은사의 애정은 지금도 생생하다.

작품들에는 한 줄로 축약된 문장들이 나열돼 있어 눈길을 끈다. "저항은 작가들을 움직이는 에너지다"와 같은 문구 등은 아포리즘처럼 다가온다. 김중 시인은 추천사에서 "문학에 대한 비전을 깃발처럼 펴려는 그의 문장에 끌리다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래·악기 연주·무용 한자리서 만난다

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 23일 광주 남구문예회관

노래와 악기 연주, 무용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무용과 함께 하는 교류공연'이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사단법인 빛고을문화예술공연위원회(사진)의 주관으로 열리며 광주 지역 성악가, 연주자 등과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명선현대무용단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먼저 하이든의 '현악4중주 황제 2악장'을 시작으로 이흥렬의 '꽃구름 속에', 커티스의 '나를 잊지 말아요'를 들려준다. 이어 피터 워록의 '현악 챔버를 위한 조곡' 연주와 함께 무용을 선보인다.

아울러 조두남 '벚노래', 카푸아 '오 나의 태양',



피아졸라 '안녕 아버지', '겨울', 이주호 '행복을 주는 사람' 등도 만날 수 있으며 알비노니의 '현악기를 위한 아다지오' 무대는 무용수와 함께 꾸민다.

음악감독은 양진이 맡았으며 무대에는 소프라노 김선희, 바리톤 손승범, 바이올린 문종아·채송화,

비올라 김주영, 첼로 김민수, 더블베이스 류수경, 피아노 장승기, 클라리넷 이은영 등이 오른다. 또 무용수 강소영·정종용·정승준 등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은 12월7일 전주한벽문화관 공연장에서도 열린다. 문의 062-654-005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